# "우주기술 한단계 도약 계기 됐으면"

## ■한국인 첫 우주인 고산씨
## 3만 6천對 1 관문 뚫은 만능 과학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고산씨가 공식 선정되면서 고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우주인 후보로 선정된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도인 고산씨는 부산 출신으로 올해 31세.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으며, 한영외국어고와 서울대 수학과,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과정을 거쳐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근무했다.

고씨는 대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과학도의 길을 걸었으면서도 외국어고 재학중 익힌 중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외국어에도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

이미 후보 선정 행사에서 시종 여유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듯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라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또한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면모가 강하며 의지력과 고난 극복 능력 또한 뛰어나다.

또한 홀어머니 슬하에서 동생 1명과 함께 자란 그는 우주인 후보로 선발된 뒤 "어머니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정도로 효심 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취미로는 독서 외에 활동적, 도전적인 암벽등반과 복싱, 축구 등을 즐겨, 대학 시절에는 산악부와 축구부, 복싱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 2003년부터 2년간 산악부 대장을 맡아 팀을 리드한 경험은 고씨가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고산씨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주에 첫발을 내딛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우주 기술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축하해" 5일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최초 우주인 선정서 수여식이 끝난 뒤 마련된 다과회장에서 이소연씨가 고산씨에게 주스를 따라주고 있다. /연합뉴스

# '김치 활용 우주식품 개발' 등 18가지 연구 실험

## ■우주인 어떤 임무 수행하나

"잉크 펜은 지구와 우주에서 쓸 때 어떻게 다를까", "식물은 지구와 우주에서 어떻게 다르게 자랄까",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도 무게를 잴 수 있을까"

고산씨는 내년 4월 우주비행에 나서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7~8일간 머물며 무중력의 우주공간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과학실험을 하게 된다. 고산씨가 수행할 연구는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할 교육실험 5가지와 산업적·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기초과학실험 13가지 등 18가지다.

◇교육실험

**▲지구와 우주에서 물의 현상 비교**=지구와 우주에서 물의 구성 및 성질 등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알아본다.

**▲회전운동 및 뉴턴법칙 등 비교**=뉴턴 운동법칙 및 회전운동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지구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험한다.

**▲표면장력 차이점 비교**=물 등 액체가 우주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구와 우주에서의 표면장력 차이와 그 원리를 밝힌다.

◇기초과학실험

**▲첨단 식품가공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우주식품 개발·실증 실험**=김치 등 한국 전통음식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해 우주인이 섭취함으로써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우주식품의 인증 및 개발 기술을 확보한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성수 박사와 원자력연구원 이주운 박사가 제안했다.

이밖에 ▲우주에서 쓸 수 있는 '우주저울' 개발▲국제우주정거장 내 소음 환경문제 파악 및 개선 연구 ▲초파리를 이용한 중력반응 및 노화유전자 탐색 ▲우주공간에서 사용할 소형 생물배양기 개발 ▲우주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메모리소자 실증실험 ▲무중력 상태의 제올라이트와 금속-유기다공성 물질의 결정성장 등이다.

## ■탈락한 이소연씨 가족

"그래도 내 딸 소연이가 자랑스럽습니다."

5일 한국 최초 우주인에 고산씨가 선정되자, 그와 막판까지 겨뤘던 광주출신 이소연(여·28·KAIST)씨의 어머니 정금순(58·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는 "씩씩한 소연이가 앞으로 남은 기간도 끝까지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소연이가 빨리 적응하는 편이라서 서운한 마음은 금방 털어내고 고산씨를 도와 예비우주인의 역할도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 "아쉽지만 장하다 우리딸, 예비우주인 역할 잘할 것"

어머니 정씨는 이날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기도를 한 뒤 집에 도착해 발표를 기다렸다.

오전 11시께 방송을 통해 이씨의 탈락 소식을 접하고선, 다소 서운한 듯한 표정을 보였지만 "소연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기원했다.

이소연씨도 "첫 우주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최고 우주인이 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예비우주인인 이씨는 탑승우주인에게 의료 등의 문제로 우주선 탑승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남은 기간 러시아 우주인들로 구성된 예비팀과 함께 탑승우주인과 동일한 우주임무 훈련을 받게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테러지원국 삭제' 北-美 진실 공방

## 美 "시기 안 정해져" 北측 발언 일축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합의했다"(북한 외무성) "아직 정해진 것 없다"(미 국무부)

제네바에서 1, 2일 열린 북핵 6자회담의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놓고 북미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北美, 상반된 주장과 반박**=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 목표들이 토의됐으며 일련의 합의들이 이뤄졌고, 북미가 연내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토의,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일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등 참석을 위해 시드니에 도착,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케이시와 힐은 "북한이 이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선 법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 과정이 더 진행돼야 그 맥락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수순 돌입했나**=아닌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북한이 핵폐기 입장을 분명히 한 2·13 합의 이후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시드니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제네바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물론 이런 기류가 대북 협상론에 무게를 싣는 국무부 등 비둘기파들의 입장에 국한된 것일 수 있다. /연합뉴스

# 내일 시드니 韓美정상회담

## 盧대통령 APEC 정상회의 출국

7일 시드니에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북미관계 정상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보, 한미동맹 관계 강화와 관련된 현안들이 폭넓게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6일 오전 출국한다.

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존 하워드 호주 총리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도 내달 2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강조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미국 정부의 기대 및 주문사항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된 뒤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환영입장을 밝혀왔다. /워싱턴=연합뉴스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개선해야"

## 유엔, 한국에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시민단체가 5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 5차 및 6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를 발표했다면서 최종 권고문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부부강간이 범죄화되지 않은 것과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기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외국여성이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차기 6자회담 본회의 17일 시작주 개최될 듯

차기 6자회담 본회의 개최 일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서 "북핵 6자회담이 내주에 열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그 다음주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제6차 2단계회의가 될 다음 6자회담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참가국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6자회담 개최일정을 확정해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연합뉴스